

투데이 칼럼

한·중 갈등과 싱하이밍의 발언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싱대사의 발언 배경이 된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실제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으로 변해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문제 발언은 이제껏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나왔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작성한 듯 준비한 발언문을 10여 분간 읽어 내려가며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좋지 않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단골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중국의 패배에 관둔을 걸지 말라고 압박했다. 우리 외교부가 싱대사를 초치해 열중 경고하자, 중국도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맞불을 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싱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싱대사를 구한말 내정에 간섭했던 위안스카이에 빗대며 비판했다. 미국은 압박 전술일 것이라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정복규 논설위원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 외교, 아첨 등으로 혹평했다. 4월 말 방미에 앞선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는 막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이후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뜻하는 이른바 '전랑 외교'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는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과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임 중 첫 방중에 나섰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다고는 하지만 물밑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미국 등 서구가 상당히 분

리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런 형태의 양극체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는 그렇게 무로 자르듯이 경제를 한꺼번에 나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이 정답이다.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건 매우 부당스런 일이다.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다. 한·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체 중국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의 영도도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비상이 강화됐다"며 시진핑 주석을 치켜세웠다. 리봉남 주중 대사

를 통해 질순 축하 꽃바구니도 보냈다.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되고, 한중 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경우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의 가치가 중국에 커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과 외교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인정 등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미일 편중 완화를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소극적이어서 북한은 별 어려움 없이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한중 관계 악화는 안 된다. 분석이다. 북한 무역이나 투자는 9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대북 제재, 유엔 제재를 넘어갈 수 없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전략이 절실하다.

사설

우석대 진천캠퍼스 부총장의 발전기금 기부

오석흥 우석대 진천캠퍼스 부총장이 '우석진천사랑 릴레이 기부 캠페인'의 1호 주자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최근 우석대 진천캠퍼스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학금과 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2022년 6월 우석대 진천캠퍼스 부총장에 취임한 그는 1992년 우석대 식품생명영양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그 뒤 국제교류처장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장, 식품과학대 학장 등을 지냈다. 또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전국사립농기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오석흥 부총장은 로컬푸드 운동의 선구자로 불린다. 완주 용진농협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 농업 혁신 사업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성공 모델 표본이 됐다.

오 교수는 발효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자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김치 유산균의 출처를 추적해 밝혀내고, 김치 유산균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일정의 편견이 있다"며 "누구나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고, 이는 교육자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부각될 수도, 단점이 보완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현재 위기를 타결할 방법은 먼저 학생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건강하게 만들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석대가 단순히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편 오석흥 부총장은 익산 남성고를 졸업했다.

'동네 소식지' 된 전주 평화동 마을신문

전주 평화동 마을신문이 동네 소식지로 뿌리를 내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인 소식을 볼 수 있다. 갈수록 나와 가까이 사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에겐 별로 관심이 없다.

전주 평화동 마을신문은 2010년 8월 15일 창간된 후 꾸준히 마을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다. 평화동 마을신문의 편집회의는 마을의 주민 기자와 편집장이 모여 기사 취재, 칼럼, 광고 등을 상의한다. 주민 기사는 10여명에 이른다.

논술강사, 영어회화 강사, 그리고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기자들은 마을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사건을 찾아 기사화한다.

'지시제 살리기'는 생태호수 지시제에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생겨났던 문제다. 고민하던 주민들은 결국 평화동 마을신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뒤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모았다.

전주시청의 협조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드디어 시청에서 지시제에 불이 들어오도록 상류의 저수지 관내에서 관로를 뚫어 호수에 불이 차게 되었다.

지시제는 이후 평화2동 마을구기 협의회에서 매달 청소와 정화 작업을 하며 함께 가꾸고 있다. 평화동 마을신문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정보 교환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유료광고와 대소사 소식(무료)도 게재한다.

마을신문은 후원자 모두에게 우편발송을 한다. 아파트 단지외도 서관 그리고 각종 기관에는 직접 찾아 배포한다. 마을신문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신문이다. 구독료는 광고는 모두가 주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활동으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마을신문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손팻말 들고 시위하는 필리핀 사람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궁전 인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가 "필리핀을 사랑하자"라는 필리핀 관공부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위대는 높은 생활비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마르코스 정부를 비난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스마트시티 준공 축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 남쪽 약 30㎞ 떨어진 아르카타에서 '스마트시티' 준공식이 열려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단이 공연하고 있다. 총 33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2019년 착공한 '스마트시티'는 전기버스와 자동차, 태양광,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주택' 등을 특징으로 다른 도시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약 7만 명이 입주할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